

2024년 4월 8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위험자산 베팅의 유효성 입증 시기

한국 증시는 1) 미국 3월 소비자물가(CPI), 2) FOMC 의사록, ECB 통화정책회의, 금통위 등 중앙은행 이벤트, 3) 중국의 인플레이션 및 실물 지표, 4) JP모건 등 금융주 1분기 실적, 5) 국내 22대 총선 이후 저 PBR 업종 주가 변화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 (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670~2,770pt).

3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의 컨센서스는 각각 3.5%(YoY, 2월 3.2%), 3.7%(YoY, 3.8%)로, 2월에 이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재상승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이미 3월 중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한 흐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목격하면서 3월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주가에 선반영해온 측면도 있다고 판단. 클리블랜드 연연에서 4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 전망치를 각각 3.3%, 3.5%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4월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재차 하락 경로로 복귀할 것임을 시사. 이를 감안 시 3월 CPI가 컨센을 대폭 상회하는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증시의 추세 하락을 만들어 내기 어려울 전망.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Market 김지연
jeehyun12@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5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가 유입된 가운데, ISM제조업지수 호조, 유가 상승, 연준위원의 매파발언 등 매크로민감도가 높아지고 미 국채 금리 4.4%대까지 상승하며 성장주 중심으로 약세 (KOSPI -1.18%, KOSDAQ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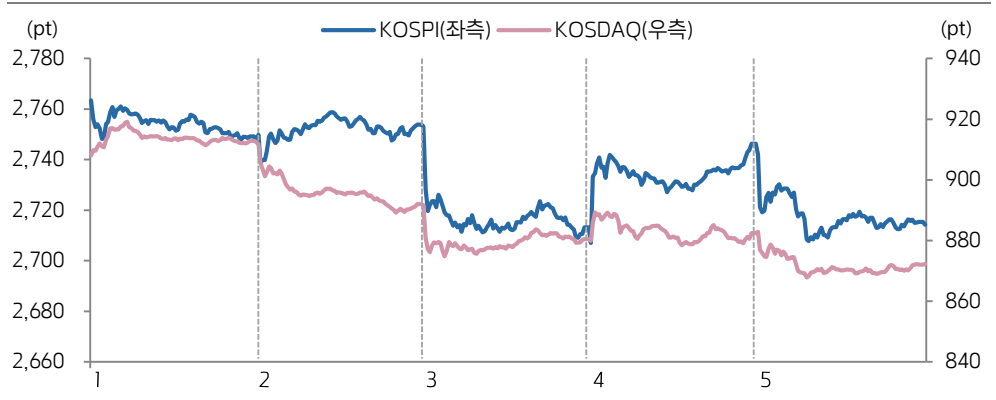
1일(월) 국내 증시는 중국 PMI 개선 및 그에 따른 리오프닝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이후 한국의 3월 수출 컨센 하회, 주중 미국 고용지표 대기 심리 등으로 장 중반 이후 상승폭을 축소. 3월 한국수출은 YOY 3.1% 수입은 -12.3% 감소하며 무역수지 흑자 기록. 특히 반도체 수출 YOY 35.7% 증가하며 2022년 이후 최고치 기록.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22년 3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반 증가. 디스플레이(16.2%), 컴퓨터(24.5%) 수출은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5.5%)는 4개월 만에 반등.

이후 ISM제조업지수 호조, 애플랜다 연은 GDP 추정치 상향, 민간고용 지표 호조 등에 금리인하 전망이 위축되며 달러강세 및 미 국채금리 상승을 유발. 이로 인해 국내 증시에서도 바이오, 이차전지 등 성장주 중심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 추가로 이차전지의 경우 테슬라 인도량 쇼크 및 이차전지 수요둔화 우려로 낙폭 확대.

4일(목)에는 반도체 업종 및 저PBR주 반등,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반등시도.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 적자폭 확대에 주가가 5%대 급락한 점은 반도체 업종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 그러나 5일(금) 연준위원의 매파발언 및 미 증시 조정, 금리인하에 대한 불안 등으로 하락 전환. 매파 위원인 카시카리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금리인하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발언. 카시카리 총재는 지난 회의에서 올해 2회 인하를 주장했었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 전일 라파엘 보스틱 연은 위원이 올해 금리인하는 한번뿐일 수 있다고 발언한데 이어 연준위원들은 최근 유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 재상승을 경계.

업종별로음식료품(+3.63%), 건설업(+2.28%), 전기전자(+0.28%), 섬유 의복(+0.23%) 강세, 의약품(-4.51%), 의료정밀(-4.09%), 철강금속(-3.57%), 유통업(-3.15%), 운수장비(-2.52%) 약세. 외인(+17,490억원)은 전기전자(+18,046억원), 화학(+1,445억원), 보험(+476억원), 금융업(+440억원) 중심으로 순매수, 기관(-14,836억원)은 화학(+918억원), 음식료품(+636억원), 섬유 의복(+75억원), 의료정밀(+7억원) 중심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4월 8일	월	독일	산업생산 (MoM) (2월)	2월	-	1.0%
		유로존	Sentix 투자자신뢰지수 (4월)	4월	-	-10.5
		미국	CB 고용동향지수 (3월)	3월	-	112.29
4월 9일	화	미국	전미자영업연맹 소기업 낙관지수 (3월)	3월	90.0	89.4
		발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4월 10일	수	미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YoY) (3월)	3월	3.7%	3.80%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MoM) (3월)	3월	0.3%	0.4%
			소비자물가지수 (MoM) (3월)	3월	0.3%	0.4%
			소비자물가지수 (YoY) (3월)	3월	3.5%	3.2%
	휴장	한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발언	시카고 연은 총재				
4월 11일	목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3월)	3월	0.4%	0.7%
			생산자물가지수 (YoY) (3월)	3월	-2.8%	-2.7%
		미국	근원 생산자물가지수 (YoY) (3월)	3월	-	2.0%
			근원 생산자물가지수 (MoM) (3월)	3월	0.2%	0.3%
		생산자물가지수 (MoM) (3월)	3월	0.3%	0.6%	
		생산자물가지수 (YoY) (3월)	3월	-	1.6%	
	실적	블랙록, 델타에어라인				
	회의	ECB 통화정책회의		4.5%	4.5%	
공개	FOMC 의사록					
4월 12일	금	한국	실업률 (3월)	3월	-	2.6%
			금리 결정 (4월)	4월	3.5%	3.5%
	중국	수출액 (YoY) (3월)	3월	-1.8%	5.6%	
		수입액 (YoY) (3월)	3월	0.7%	-8.2%	
		무역수지(USD) (3월)	3월	73.60B	39.71B	
	독일	소비자물가지수 (MoM) (3월)	3월	-	0.4%	
		소비자물가지수 (YoY) (3월)	3월	-	2.2%	
	미국	수출물가지수 (MoM) (3월)	3월	0.1%	0.8%	
		수입물가지수 (MoM) (3월)	3월	0.4%	0.3%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4월)	4월	78.7	79.4	
		미시간대 1년 후 기대인플레이 (4월)	4월	-	2.9%	
		미시간대 5-10년 후 기대인플레이 (4월)	4월	-	2.8%	
		실적	JP 모건, 웰스파고, 씨티그룹			
	회의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발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미국 3월 소비자물가(CPI), 2) FOMC 의사록, ECB 통화정책회의, 금통위 등 중앙은행 이벤트, 3) 중국의 인플레이션 및 실물 지표, 4) JP모건 등 금융주 1분기 실적, 5) 국내 22대 총선 이후 저 PBR 업종 주가 변화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670~2,770pt).

5일(금) 미국 증시는 3월 고용 서프라이즈에 따른 연준의 6월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미 10년물 금리 4.4%대 진입에도, 직전일 급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세 유입, 인플레 둔화 기대감 지속 등으로 1%대 상승 마감(다우 +0.8%, S&P500 +1.1%, 나스닥 +1.2%). 3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은 30.3만건으로 전월(27.0만건) 및 컨센(21.2만건)을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 실업률도 3.8%로 전월(3.9%) 및 컨센(3.9%)보다 낮게 나오는 등 미국 고용시장이 좀처럼 둔화되지 않고 있음을 시장에 확인시켜준 상황. 이로 인해 CME Fed Watch 상 6월 금리인하 확률이 65%대에서 50%대로 내려가는 등 기존에 시장이 베이스 경로로 상정하고 있던 6월 FOMC 인하 전망에 균열이 가고 있는 실정.

하지만 이날 미국 증시의 강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양호한 경기 흐름이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해석도 있었으나), 시장은 연준의 정책 경로가 데이터 의존적이기에 6월 FOMC 전까지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둔화될 것이라는 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번 고용지표 상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이 4.1%(컨센 4.1%)로 2월(4.3%)에 비해 둔화됐다는 점도 여기에 힘을 실어준 분위기.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 파월 의장이 고용 호조가 금리인하를 미룰 병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점도 상기해볼 필요.

이 같은 베팅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1차 지점은 10일(수) 발표 예정인 3월 CPI가 될 것. 일단 3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의 컨센서스는 각각 3.5%(YoY, 2월 3.2%), 3.7%(YoY, 3.8%)로, 2월에 이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재상승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이미 3월 중 유가 등 원자재 강세,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목격하면서 3월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주가에 선반영해온 측면도 있다고 판단.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4월 헤드라인과 코어 CPI 전망치를 각각 3.3%, 3.5%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4월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재차 하락 경로로 복귀할 것임을 시사. 이를 감안 시 3월 CPI가 컨센을 대폭 상회하는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증시의 추세 하락을 만들어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CPI 이외에도 FOMC 의사록(11일), ECB 회의(11일), 금통위(12일), 중국 실물 지표(12일) 등 매크로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는 구간에 돌입하지만, 금주부터는 본격적인 1분기 실적시즌 영향권의 초입에 들어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지난 금요일에 (주가는 셀은 등으로 취약했으나)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른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지난 4분기 실적시즌 때와 달리 1분기 실적시즌의 포문을 긍정적으로 열어준 상황. 미국 또한 연준 불확실성 등 매크로 이슈에 묻혀 1분기 실적 시즌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금번 실적시즌은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에 매크로 불안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한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추진력과 관련이 있는 10일(수) 22대 총선 결과도 중요. 이는 최근 2월 초 수준으로 주가가 회귀한 저 PBR주들의 주가 및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 이번 총선 결과 이후 현 정권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정책을 둘러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

2024년 4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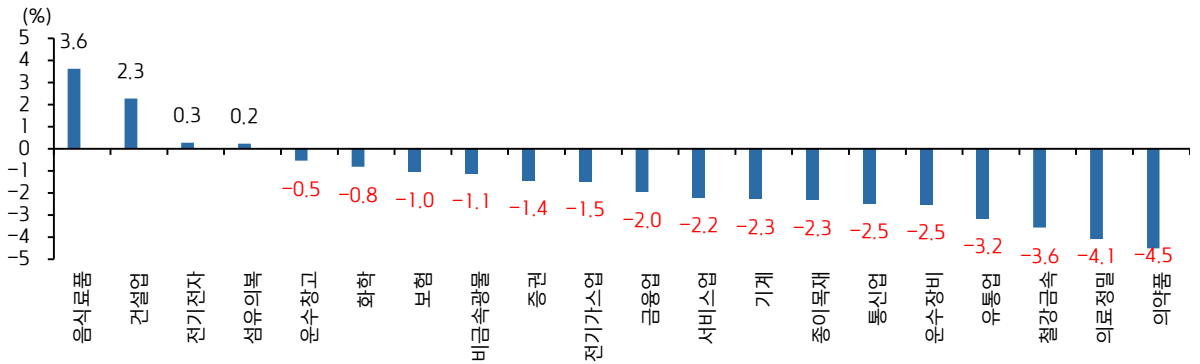
KIWOOM WEEKLY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2,714.21	-1.0	-1.2	2.5	2.2
대형주	2,723.61	-1.1	-1.3	2.8	2.8
중형주	2,854.68	-0.4	-0.3	0.7	2.4
소형주	2,312.19	-0.6	-0.7	-0.3	1.1
코스피200	371.57	-1.1	-0.8	3.9	3.8
코스닥	872.29	-1.2	-3.7	0.7	0.7
대형주	2,067.30	-1.5	-5.5	1.8	1.8
중형주	740.95	-1.3	-2.6	0.6	3.7
소형주	2,815.17	-0.6	-1.2	-0.2	0.3
코스닥150	1,430.05	-1.5	-5.9	1.0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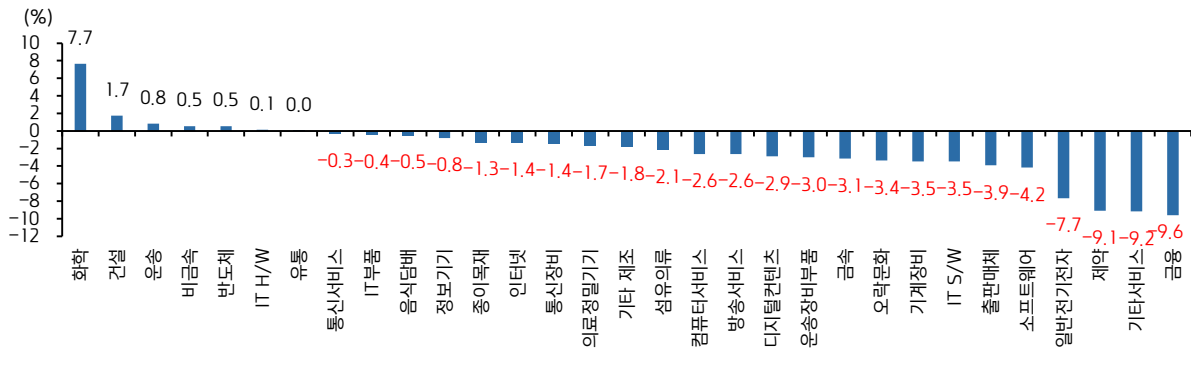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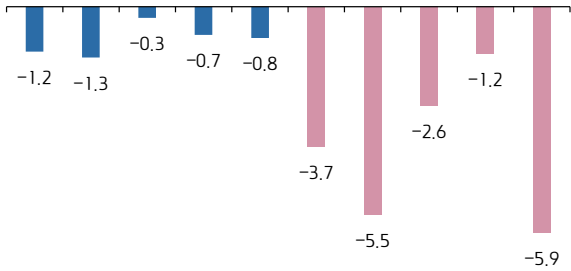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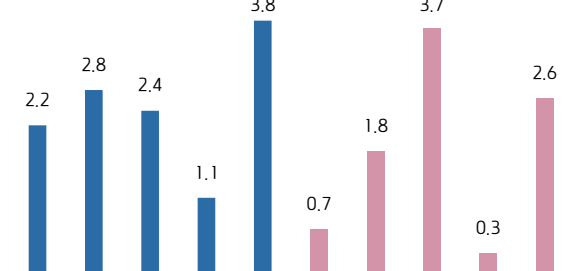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200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150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200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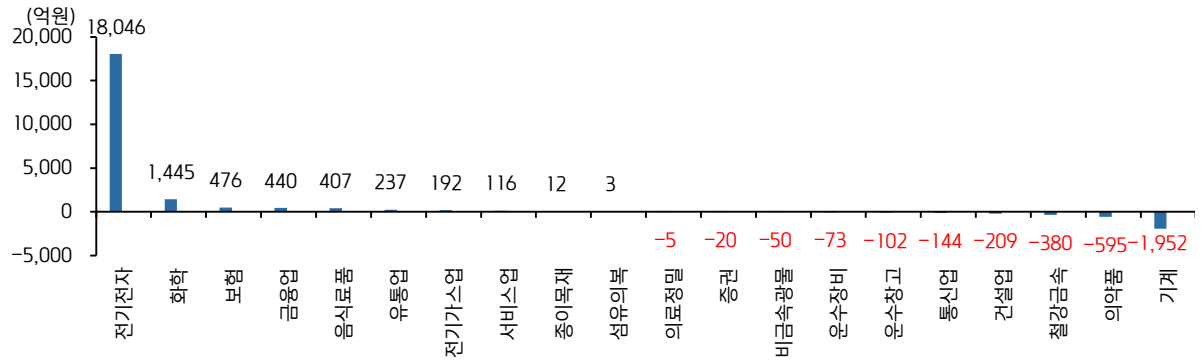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시가총액 상위 기업 주간 수익률

순위	종목코드	코스피	시가총액(억원)	5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주간수익률(%)
1	005930	삼성전자	5,044,466	22,198	2.6
2	000660	SK 하이닉스	1,330,788	8,026	-0.1
3	373220	LG 에너지솔루션	879,840	738	-4.8
4	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578,645	366	-2.2
5	005380	현대차	477,004	2,815	-3.2
6	000270	기아	422,146	1,970	-4.7
7	068270	셀트리온	387,038	854	-7.2
8	005490	POSCO 홀딩스	333,634	2,187	-6.5
9	035420	NAVER	313,611	1,782	3.0
10	006400	삼성 SDI	289,155	2,032	-10.7
순위	종목코드	코스닥	시가총액(억원)	5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주간수익률(%)
1	247540	에코프로비엠	234,234	1,780	-12.6
2	086520	에코프로	146,452	2,834	-13.1
3	028300	HLB	112,629	2,934	-18.2
4	196170	알테오젠	85,349	3,732	-18.4
5	022100	포스코 DX	67,123	386	-9.7
6	348370	엔켐	63,383	4,813	51.8
7	066970	엘앤에프	60,185	545	-4.7
8	058470	리노공업	39,935	704	2.5
9	403870	HPSP	38,730	950	-12.1
10	068760	셀트리온제약	37,474	17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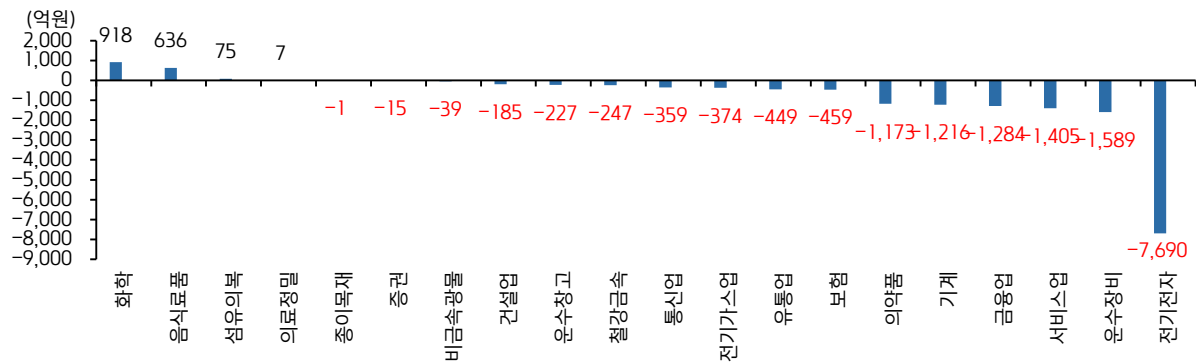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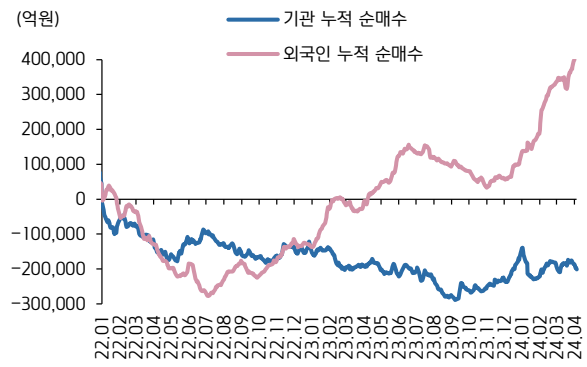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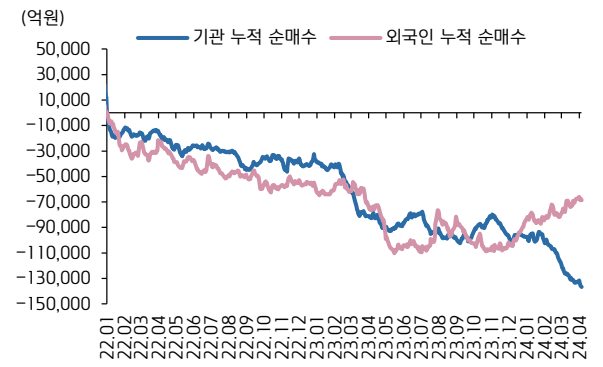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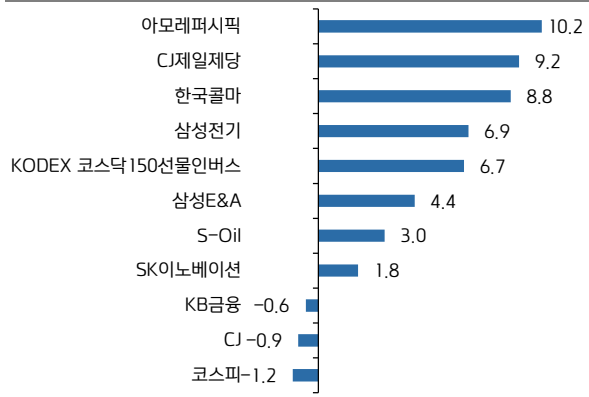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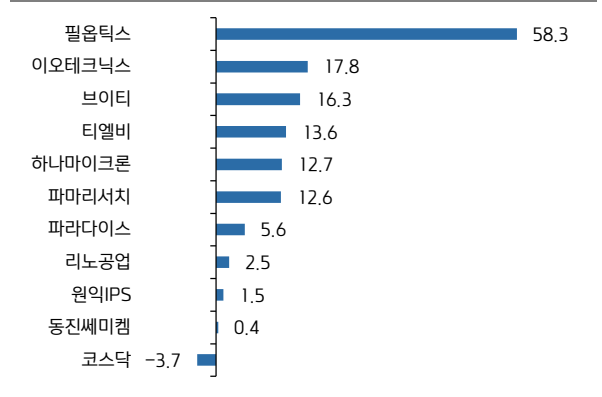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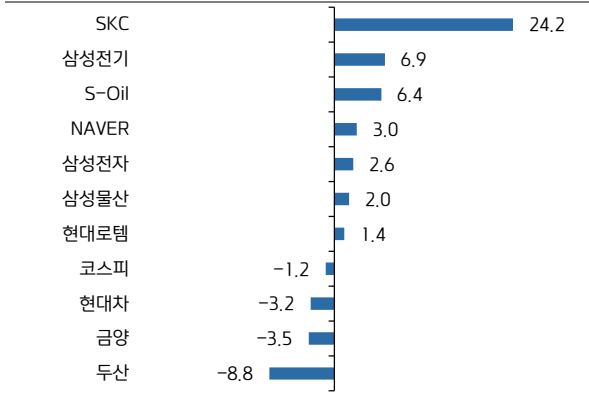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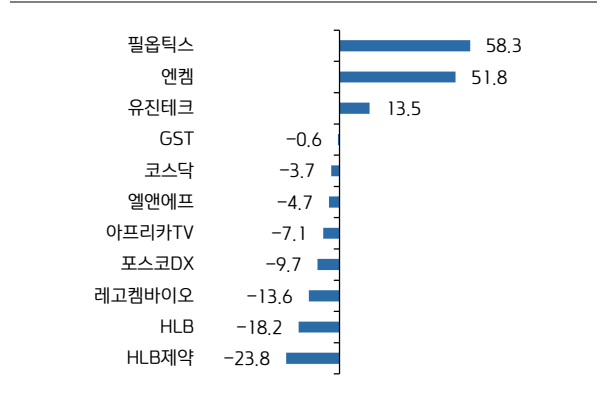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외국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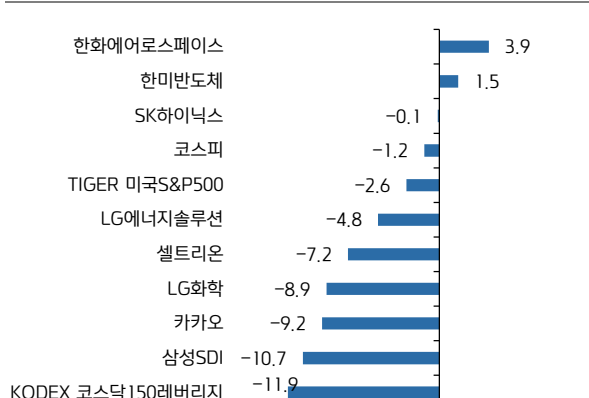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외국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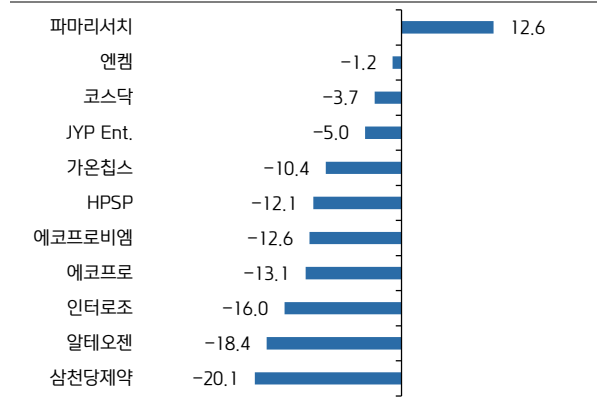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개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개인 순매수 상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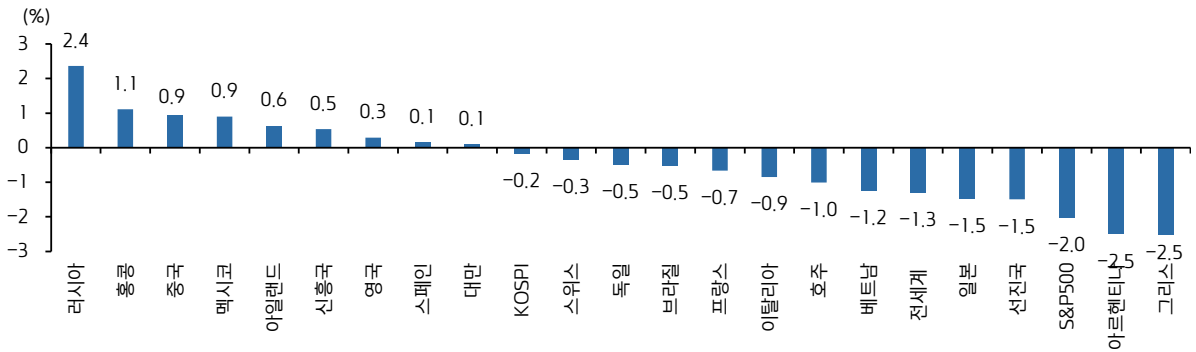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용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용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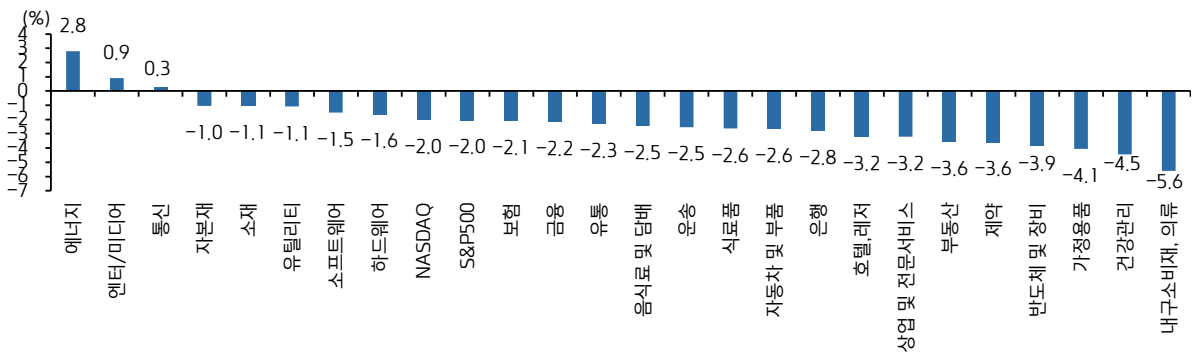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